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1991. 5. 10

北韓研究室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第85次 IPU平壤總會概觀	3
2. 總會 經過	4
3. 金日成의 開幕演說 分析	5
4. IPU 總會와 南北關係 展望	8
5. 綜合分析	9
附錄 1. IPU 平壤總會 日別 主要 日誌	11
2. 北韓의 國際機構 加入 現況	17
3. IPU概觀	19

빈 면

1. 第85次 IPU 平壤總會概觀

- 北韓은 南韓과의 體制競爭에서 北韓의 우월성을 對外的으로 과시하고 對內的으로 國民의 自矜心을 심어주기 위해 招請外交를 확대 강화시켜 왔음.
- 그 일환으로 '83년 第1次 비동맹 및 기타 개발도상국 교육 및 문화부장會議, '86년 9월 한반도 非核 平和 위한 平壤國際會議 개막 平壤선언 채택, '87년9월 平壤영화축전, '89년 제13차 世界 청년학생 축전을 유치했고,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건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85차 IPU 總會를 유치.
- 특히 IPU 總會의 平壤 유치의 目的은 이번 總會의 安건이
 - ① “核武器 및 大量殺戮 武器들의 전파를 방지하고 모든 國家들의 安全을 담보하여 軍縮過程에서 信賴造成 措置들을 강화해야 할 必要性” 및
 - ② “兒童과 女性들에 대한 폭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政策”이 포함되어 있어서北韓이 1957년(最高人民會議 제2기 1차 會議의 金日成 연설)부터 제창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문제를 國際적으로 홍보하고, 世界의 非核化 추세에 편승해 北韓에 유리한 공동선언문을 도출해 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데 있었음.
- 한편, 韓國戰 이후에 철저한 계획하에 건설된 平壤을 自由世界의 國民(인민)代表인 國會議員들에게 보여줌으로써 社會主義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사례를, 南韓보다 北韓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함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과시키 위해서 었음.

2. 總會 經過*

- 제85차 IPU 平壤總會('91. 4. 29~5. 4)에는 86개국과 10여개 國際機構에서 830여명의 代表와 업저버들이 참가했음.
-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국측 대표단 25명이 판문점을 통해 의원으로서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북.
- 北韓 김일성 주석 『自由롭고 平和로운 새 世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개막 연설
- 總會 議長으로 北韓 最高人民會議 議長인 양형섭 선출
- 主 議題는
 - ① 總會의 議長 및 副議長을 선거
 - ② 總會 의정에 포함시킬 보충안건 채택
 - ③ 核武器 및 기타 대량 살육武器들의 전파를 방지하고 모든 國家들의 安全을 담보하며 軍縮過程에서 신뢰조성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 ④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폭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政策
 - ⑤ 世界 政治, 經濟, 社會 形편에 관한 일반 토의
 - ⑥ 연맹규약 제5조 2항의 수정 등
- 아시아 太平洋 國家들 중 中國, 南韓, 北韓, 日本이 모두 참가하는 결의안 채택. 13개국 기초 소위원회에서 이미 제출된 17개 결의안중 한국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스위스, 영국, 모로코의 결의안을 기초로 문안을 작성함.
-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모든 國家들은 國際 原子力 機構와 核 安全協定을 체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무조건적으로 이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한다」고 되어, 北韓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北韓의 核 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함.

* IPU 평양 총회에 관한 자세한 일지는 <부록 1>을 참조.

- 제86차 총회는 칠레(Chile)의 발파라이소에서 개최기로 결정(**).

3. 金日成의 開幕演說 分析

가. 要 旨

第 85次 IPU總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內容을 提示하고 있음.

(1) 對外 및 國際關係

- 自由롭고 平和로운 새 世界를 建設하는 것이 現 時期 人類 共榮의 課題.
- 國際關係에서 相互尊重과 內政不干涉,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나라들 사이의 親善과 協助를 적극 發展시켜야 함.
- 軍縮을 實現하고 核武器를 비롯한 대량 殺傷武器를 撤廢하는 것이 가장 切實 한 問題.
- 朝鮮의 統一을 實現하는 것은 우리 民族의 死活的 要求이며 國際政治에서 解決되어야 할 중요한 問題임.
- 朝鮮問題의 책임있는 有關國家들은 물론이고 世界 모든 나라 國會와 政治人들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에 깊은 關心을 돌리며 이 문제에 正當한 解決을 위하여 積極 協力 期待.

(2) 對 內

- 北韓은 가장 어려운 條件과 環境속에서도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있으며 北韓 人民은 자기의 信念에 따라 自體의 힘으로 인간의 理想社會를 끝까지 建設해나갈 것임.

** IPU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을 참조.

(3) 南北關係

- 朝鮮半島를 非核地帶 平和地帶로 만들 것을 強力히 主張.
- 聯邦制 方式으로 統一할 것을 되풀이 主張
- 南北사이에 對話를 積極 發展시켜 나갈 것임.

나. 既存의 北韓政策에서 變化된 部分

全般的인 演說의 內容은 既存의 (新年辭 基準) 範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微細하나마 修正 變化된 部分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됨. 이러한 判斷은 社會主義國家들이 變革을 經驗하고 있는 狀況속에서 社會主義 國家들 및 美 日 등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새로운 關係設定이 요구되는 時期, 南北高位級會談, UN加入등의 중요한 懸案問題가 걸려있는 時期라는 점과 關聯해서 導出된 것임.

- (1) 朝鮮의 統一을 國際政治에서 解決해야 할 중요한 問題의 하나라고 보고 "責任 있는 有關國家들"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에 깊은 關心을 돌리며 이 問題의 正當한 解決을 위해 積極 協力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점은 지금까지 主張하던 外勢排擊 路線에서 變化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 美·日 帝國主義에 대한 非難이 없음. 中·蘇 社會主義 同盟國에 대한 鼓舞讚揚이 없이 全般的 基調에서 國際關係에서의 柔軟性이 支配的임.
- (3) 이러한 점들은 "朝鮮問題에 책임있는 有關國家들"인 日本, 美國 등의 資本主義 國家와 새로운 關係를 樹立하고자 하는 강한 意圖를 읽을 수 있음.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媒介로 하여 美·日과의 接觸을 增大하고자 하는 意圖로 볼 수 있음.
- (4) "朝鮮問題에 責任있는 有關國家들"의 協力을 強調한 것은 北韓에게 當面한 것은 統一問題보다는 日本과의 修交, 美國

과의 經濟協力 關係 樹立을 통한 經濟問題의 解決이 時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懸案問題에 對한 展望

北韓이 統一을 媒介로 하여 韓半島問題에 責任있는 有關國家와의 關係改善을 示唆하는 이러한 路線變化가 (1)UN 加入, (2)北-美, 北-日 關係, (3)南北高位級會談 등의 主要 懸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展望해 봄.

(1) UN加入

- 北韓이 北-日 修交와 더 나아가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통한 經濟문제의 해결을 위해 UN 同時加入을 試圖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金日成의 演說題目이 "自由롭고 平和로운 새 世界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그러한 새 世界 建設에 參與한다는 名分으로 UN加入의 名分을 設定하는 試圖로 解析하는 것임.
- 金日成 演說文에서 示唆된 것 외의 중요한 證據가 28日 저녁 만수대 의사당에서 윤기복 統一政策審議委員長 主權의 晚餐席上에서 윤기복 委員長의 發言內容에서 찾아짐. 윤기복은 "聯邦制는 北과 南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聯邦統一國家를 세우자는 것으로 國家聯合과는 다르나, 地域自治政府에 더많은 權限 즉, 外交權, 軍事統治權, 內政權 등을 줄 수도 있다"고 한 聯邦制의 修正內容이 南北이 UN에 同時加入할 수 있는 餘地를 만들고 있음을 示唆함.

(2) 北-美, 北-日 關係

美國과 日本에 대한 非難의 내용이 없을 뿐더러 美國과 日本을 "朝鮮問題의 責任있는 有關國家"로 指稱하여 統一問題에 積極 協力할 것을 期待한다고 言明함으로써 統一問題를

媒介로 특히 美國과의 接觸을 試圖하는 것으로 分析할 수 있음. 美國의 反應如何에 따라서 UN問題와 더불어 北韓의 對外開放이 進展될 可能性이 있음.

(3) 南北高位級 會談

周邊國의 積極的인 支持를 呼訴한 점과 이종구 長官의 發言에 대한 直接的인 言及이 演說文에 包含되지 않은 事實로 보아 南北高位級會談의 再開를 조심스럽게 展望할 수 있음. 윤기복 統一政策審議委員長이 자신이 主擧한 晚餐에서 “南朝鮮 軍部責任者가 奇襲攻擊을 하겠다는 好戰性發言을 해 驚愕을 금할 수 없다”는 發言을 했고 또 對內的으로 放送과 電視을 통해 連日 “남조선과 미국이 도발하고 있다”는 發言을 勸案할 때 성급한 結論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북한은 적절한 시기에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임

4. IPU 總會와 南·北關係 展望

가. 肯定的 要素

- 해방이후 최초로 한국의 國會議員들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해 北韓을 방문한 사실은 그 자체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큰 변화임.
- 김일성 연설문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北韓의 윤기복 노동당 서기가 「南 北韓의 2개 정부가 잠정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外交와 군사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統一 방안의 수정을 시사.
- 自由主義 世界를 비롯한 世界 86개국의 국민 代表들이 北韓의 실상을 짧은 기간이나마 현실 그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國際的 여론이 南·北韓 UN가입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

인 남한측 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기대.

- 실제로 北韓측에 불리한 軍縮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世界政治人들의 北韓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체득케 하여, 대외政策의 변화 불가피성을 인식시킴.

나. 否定的 要素

- 北韓은 전통적 방식으로 IPU 總會 개최 자체를 北韓 外交의 성공으로 평가, 각종 매체를 통해 주체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 내부결속만을 강화(김일성 개막 연설에서 주체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강조) 오히려 대내외적 선전선동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平壤總會 참석후 한국代表들이 각종 일간지에 연제한 北韓 방문기를 트집잡아, 상호비방과 대화단절의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 각종 회담 연기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음.

5. 綜合分析

- 北韓이 世界 각국의 국민(인민)代表인 의원들을 平壤에 招請, 주체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임.
- 北韓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과시, 사회주의 혁명의 계속성을 강조하려 했으나, 현재까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키 어려움.
- 世界적 신질서(New Order) 분위기를 간파하고, 플라톤의 동굴식 생활을 계속하려는 오판을 하고 있음(김일성 개막식 연설문 분석 참조).
- 한반도의 非核 지대화를 會議의 중심 issue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냈으나, 많은 서방國家들로 부터 역공을 당했고, 國際여론의 비판 대상이 됨.

- 한국 代表단에 대한 설득과 회유는 실패했고, 오히려 적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여·야 代表에 관계없이 단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수행기자를 통해 북한의 실상들이 현실 그대로 남한에 소개됨으로써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 연방제 統一방안에 대한 유연적 태도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전술적 차원임을 스스로 폭로한 결과가 되었고, 北韓의 내면적 저의를 드러냄.
- IPU를 유치한 온건파들의 입지 약화로 향후 남. 북 대화 재개는 短期的으로는 불투명하나, 북한사정상 대화재개는 불가피할 것임.
- 판문점을 통한 최초의 北韓 방문이라는 점에서, IPU 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음.
- 향후 北韓과의 대화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北韓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음.

附 錄

1. IPU 平壤 總會의 日別 主要 日誌

1991. 4. 23

- 北韓이 IPU 한국측 단장 박정수 국회 외무위원장의 한국 이종구 국방장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 대표단의 입북을 거절할 뜻을 시사.
- 마오다 소오 IPU 이사회 위원장 방북.
- 北韓 최고인민회의 - 짐바브웨 국회대표단간 「회담」 진행(만수대 의사당)

1991. 4. 24

- 제네바 주재 北韓 대사인 리철은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비슷한 사찰을 허용할 때 까지 IAEA의 核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을것임을 강조하고, 「核 위협이 제거되는 즉시 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1991. 4. 25

- IPU 總會에 미국대표 불참 선언
- 北韓 중앙은행은 IPU 平壤總會 기념주화 2종 발행

1991. 4. 27

- 한국측 IPU 平壤 總會 참석 대표단 平壤으로 출발. 의원 12명, 수행원 8명, 기자 5명

1991. 4. 28

- IPU 한국 대표단이 봉수교회(박정숙, 조세형, 김광일), 장충성당(김현욱, 박관용), 광범사(정재문)에서 예배 및 예불
- 이성동 봉수교회 목사는 『방북인사 석방』, 『한반도 非核지대

- 화』, 『콘크리트 장벽 철거』 등을 설교
- 만수대 의사당에서 남북 代表단 만찬
 - 이 자리에서
 - 윤기복 단장은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마무리 짓고 본 회담에 들어가면 國會議員 전원이 참석하는 會議을 平壤과 서울에서 열 수 있다고 강조.
 - 남북 대화가 T. S훈련 때문에 중지되고 있음을 강조, 고위급 회담이 진전을 볼 때 까지 T. S훈련을 2-3년 중지 요청
 - 北韓은 남침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강조.
 - 核 사찰은 남측의 國土內에 배치된 核武器를 마저 사찰할 것을 주장. 北韓에는 核武器가 없음을 강조.
 - 남·북 협상會議를 통한 당국자 회담에 이어 정당 사회단체 代表들도 統一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민간대화 강조.
 - 연방제를 강조하면서 지역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 즉, 외교권, 군사통치권, 내정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UN 가입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강조.
 - 한국代表단은 北韓의 核 사찰 문제를 거론하고 「김일성 주석이 IPU 平壤 總會동안 北韓의 原子力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고 선언한다면 平和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뉴질랜드의 맥킨토시 代表는 「한반도의 平和를 위해 北韓에 대한 核 사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한국의 조순승 의원은 「原子力の 平和적 이용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北韓이 조속히 國際原子力 機構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原子力 관계 시설에 대한 國際적 검증을 받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1991. 4. 29

- 北韓의 중앙방송은 「民族統一 政治 協商會議」가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조국統一 방도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제안 이라고 역설
- 北韓 김일성 주석이 總會 개막식에서 「自由롭고 平和로운 새 世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
- 하나의 민족, 하나의 國家,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기초로 한 연방제 統一방안 강조(박수 10차례)-정확한 분석은 별첨-
- 금수산 주석궁 만찬에서 남한 박정수 단장이 김일성에게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의.
- 김정일 만찬에 불참.

1991. 4. 30

- 한국 代表團은 윤기복 北韓 統一政策 심의 위원장과 여연구 副議長 등 북측 代表들을 平壤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으로 招請, 만찬. 이 자리에서 남·북 代表들은 개성, 문산까지 28km 철길을 잇자고 합의.
- 박정수 한국측 단장 總會 本會議에서 代表연설(北韓의 核 安全協定 체결을 촉구)
- 한국 代表들이 아·태 그룹 代表단을 위한 오찬을 베풀.
- 한국 代表들은 분과위별 토론에 참석하고, 南·北 양측은 核 및 軍縮문제에 대해 상호 자극적 용어 사용 자제
- 核武器 및 대량파괴 武器의 확산방지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의 김현욱 의원은 『군비 축소를 위해서는 政治 軍事的 信賴構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여·야 4개당 8명으로 구성된 독일 대표단은 北韓 外交部에 서면으로 김일성 주석의 면담 招請을 거부. 이들은 北韓의 人權 및 政治狀況과 관련해 招請을 거부.

1991. 5. 1

- 한국의 박준규 國會議長은 IPU 平壤 總會 代表단장인 박정수 의원을 통해 양형섭 최고인민會議 議長에게 친서를 보내 북측 외회 代表團의 서울 방문을 공식 招請함.
- 北韓 한시해 代表가 『軍縮관련 결의안 문안 작성 기초 소위원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모로코 代表의 반대로 실패).

1991. 5. 2

- 한국 IPU 代表團 본 會議 및 분과會議 활동 계속. 한편 일부 代表團은 금강산 관광을 실시.
- 北韓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외국 代表團들의 판문점을 통한 남한 방문을 불허
- 『核 및 軍縮문제에 대한 결의안 문안 작성 소위』에서 國際 原子力 機構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核 안전 협정을 체결치 않은 國家들이 核 안전 협정을 조속히 맺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北韓측을 지지하는 이란, 니카라과아 안을 모로코, 호주, 카메룬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루어짐.
- 김일성 주석은 國際的 核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본측의 제의를 거부.
- 김일성 주석이 '90년 9월 가네마루 신 일본 전 부수상을 통해 미국 행정부 쪽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일본언론 보도.
- 2일 저녁 박정수, 정재문, 도영심의원 등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5만명이 펼치는 집단체조 『일심단결』을 관람.
- 호주 代表는 總會에서 『北韓이 核 안전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거론
- 비탈로네 이탈리아 代表는 『北韓이 이탈리아와 수교를 하려고 노력하고있다』고 전언

1991. 5. 3

- 이봉 중국 총리 平壤 방문
- 한국측 IPU 단장 박정수 의원은 기조 연설에서 南·北韓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등을 역설
- 오스트리아의 획틀 代表단장이 北韓의 인권문제와 비민주성 등을 정면으로 공격 『나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으며, 주민들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北韓의 12개 政治 수용소에 10만여명의 수용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고, 『IPU 代表들이 이런것을 따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 北韓은 그의 연설을 『긴급동의 발의』로 방해함.
- 北韓의 윤기복 노동당 비서는 3일 종래의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정, 『南·北韓의 2개 정부가 일정한도 내에서 잠정적으로 外交 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구상을 IPU 제85차 總會 취재차 平壤을 방문중인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일본의 니혼게이지이 신문이 보도.

1991. 5. 4

- IPU 제85차 平壤總會는 4일 이사회와 總會 本會議을 잇달아 열어 國際原子力 機構와 核 안전 협정을 맺지 않은 國家들에 조속한 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폐막. 『모든 國家의 안전보장과 軍縮 과정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강화를 위한 核武器 및 기타 대량 파괴武器 확산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결의문』
- 이 總會는 제86차 總會 개최지를 칠레의 발파라이소로 결정
- IPU 일본 國회代表團 단장은 『김일성 주석과 회담때에 판문점을 통과해 平壤과 서울을 달리는 역전마라톤 대회를 제안해 김주석의 승낙을 얻었다』고 말함.
- 한국의 도영심 의원은 의회 사법·인권문제 위원회에서 차기

부위원장 후보로 지명됨.

- 北韓의 강석주 外交部 제1부 부장은 IPU 總會 취재차 平壤에 온 외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개 의석에 의한 공동가입』 외에 별도 타협안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 강석주 北韓 外交部 제1부 부장은 남한의 UN 단독가입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北韓이 주장해온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을 남북대화를 통해 수정할 수도 있음을 비침.
- 모스크바 방송은 IPU 平壤總會에 한국代表團이 참가한 사실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시키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도. 한국 國會議員들로서는 분단이후 최초의 平壤 방문임을 지적.
- 김일성이 말레이시아 의회 代表단 집견.

1991. 5. 5

- 한국 IPU 總會 代表團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옴.
- 제85차 IPU 總會 참석차 平壤에 체류중인 중국 全人大 代表團(단장, 이사위원회 부주임 姚廣)을 김일성이 접견.

1991. 5. 6

- 北韓 최고인민會議 議長 양형섭은 IPU 平壤 總會 참석차 체류중인 소련 최고 소비에트 代表團(단장 민족會議 副議長 발렌타 글에데이크)과 만남.
- 國際의회연맹(IPU) 이사회 議長 바우다 소우가 제85차 IPU 總會 및 이사회 일정을 끝내고 平壤을 떠남.

1991. 5. 7

- 國際의회연맹(IPU) 사무총장 피에르 코르니용이 7일 平壤을 떠남.

2.北韓의 國際機構 加入現況

가.北韓의 UN 傘下機構 및 UN 專門機構 加入現況

(1991. 4. 20 현재)

기 구 명	가입년도	비 고
세계보건기구(WHO)	1973. 5	한국 1949. 6 가입 UN관련기구중 최초의 가입
유엔통상 개발 회의(UNCTAD)	1973. 7	한국 1965. 1 가입
만국유편연합(UPU)	1974. 6	한국 1900년에 가입했으나 한일합병으로 중단후, 49.12 자격회복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1974. 8	한국 1979. 1 가입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1974.10	한국 1950. 6 가입 파리상주대표부설치('76.11)
세계기상기구(WMO)	1975. 5	한국 1956. 3 가입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75. 7	한국 1952. 6 가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77. 9	한국 1952.12가입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77.11	한국 1949.11가입 로마상주대표부설치('78.10)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80. 2	한국1967. 1 가입
국제해사기구(IMO)	1986. 4	한국 1962. 4 가입 런던에 대표부설치 추진중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86.12	한국 1979. 1 가입

나.北韓의 主要 政府間 機構 加入現況

(1991. 4. 20 현재)

기 구 명	가입연도	비 고
亞·阿법률자문위원회(AALCC)	1974. 3	한국 1974. 3 가입
비동맹회의	1975. 8	한국 미가입
공산권經濟상호원조회의(COMECON)		읍저버국으로 참가 최근 해체 논의중
77그룹(Group of 77)	1976. 5	한국 1964. 6 가입
국제原子力기구(IAEA)	1974. 9	한국 1957. 8 가입
국제등대협회(IALA)	1984.11	한국 1962. 9 가입
국제도량형국(IBWM)	1981. 7	한국 1959. 7 가입
국제문화재보전복구연구센터(ICCRROM)	1988.	한국 1968. 7 가입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11	
국제수로기구(IHO)	1987. 7	한국 1963. 5 가입
국제 남·아연연구회(ILEZG)		한국 1957. 1 가입 한국 1987. 4 가입
국제통신위성기구(INTERLSTA)		'83 10읍저버자격가입신청 한국 1973. 2 가입 현재 가입모색중(북한)
국제우주통신기구(INTERSPUINIK)	가 입	사회주의권 기구
청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78.10	한국 1961. 7 가입
국제법정계량 기구(IOCМ)	1974. 5	한국 1978. 6 가입
국제표준화 기구(IOS)	1963. 6	한국 1963. 6 가입
국제무역센터(ITC)	가 입	한국 가입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IUCN)	1963. 5	한국 66~81년 사이 7개 기구 및 단체 가입 사회주의권 기구
합동核연구소(JINR)	1956.12	사회주의권 기구
철도협력기구(ORC)	1957. 9	한국 1975. 1 가입
세계관광 기구(WTO)	1987. 9	마드리드대표부 설치('90.12)

3. IPU概觀

가. 沿革

IPU는 영국 하원의 크레머(Cremer, W. R)의원과 프랑스 國民議會 빠시(Passy, F.)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1889년 6월 29-30일 까지 프랑스의 파리(Paris)에서 영국, 프랑스, 벨지움,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리베리아, 스페인, 미국 등 9개국 의원들이 제1차 國際 중재를 위한 國際議員會議(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를 개최함으로써 발족됨. 그후 1894년 會議의 명칭을 “國際의회연맹(IPU)”으로 개칭하였고 오늘날까지 상설機構로 됨.

나. 目的

IPU의 목적은 “각국 의원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의회제도를 확립 발전시키며 UN의 목적을 지지함으로써 國際平和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각국의원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하는데”에 있음.

다. 會員

(1) 加入要件

IPU에 가입하려면 실제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獨立國家의 의회가 IPU 목적에 찬동하는 의원으로 의원단을 구성하여 이 의원단으로 하여금 IPU에 가입 신청함.

(2) 會員數

1986년 8월 현재 105개국 으로서 아주(27개), 미주(20개), 구주(30개), 아프리카주(28)개로 되어 있음.

(3) 組 織

IPU에는 總會, 이사회, 집행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사무국 등 5개 기관이 있음.

- 總會(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總會는 IPU의 최고 기관으로서 중요한 國際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하며,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함. 總會는 매년 2회 개최되며 어떤 이유로도 회원국의 總會참가는 거부될 수 없음. 總會에서 회원국은 인구와 의원수 등에 따라 배정된 투표수를 행사하는 데(한국은 16표) 때로는 배정된 투표수를 분할하여 동일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을 표할 수도 있음.
- 이사회(Inter-Parliamentary Council)

이사회는 각국 의원단에서 2인씩 지명하는 이사로 구성되며, 매년 2회 總會기간에 개최됨. 이사회는 議長을 선거하며, 이사회 議長은 집행위원회 議長을 겸직함으로써 사실상 IPU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이사회의 주요 기능으로서 회원 가입 및 자격정지 결정, 總會의제 결정, 연맹사업계획 결정, 집행위원 제청, 연맹사무총장 제청 등이 있음.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IPU의 운영기관으로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議長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임. 집행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서 회원 가입 및 자격정지 문제의 심사, 긴급 이사회 소집, 이사회 잠정의제 결정, 연맹사무국 통할 등이 있음.
- 연구위원회(Study Committees)

연구위원회는 總會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政治 國際안보 軍縮위원회, 의회 사법 인권위원회, 경제·사회 문화 환경위원회, 비자치령 인종문제위원회가 있음. 연구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지명하는 정위원과 교체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나 교체위원은 정위원

부재시에만 투표권을 행사함.

○ 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Union)

사무국은 IPU의 상설본부로서, 연맹의 결의사항 집행, 의회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연맹의 행정사무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함.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總會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재임될 수 있음.

라. 財 政

IPU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됨. 1986년도 한국의원단의 분담금은 28,566 Swiss Fr, 北韓은 17,457Swiss Fr. (총 예산은 5,351,000 Swiss Fr.)

마. 主要 活動事項

IPU의 활동은 國際平和를 위한 협력과 의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대별됨.

- 國際平和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매년 2회 總會를 개최해서 중요한 國際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 다루어진 주요한 사항으로서는 중동문제, 軍縮, 인종차별, 탈식민, 남녀평등, 빈곤문제 등이 있음. 또 2-3년간 구주안보 협력의원회의와 지중해 오염억제를 위한 연안국 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안보와 환경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음. 특히, IPU는 國會議員 인권침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국의원들이 임기중 부당한 조치로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그 외에도 IPU는 UN, UNFPA, UNICEF, WHO 등의 國際機構와 협력하여 인구, 아동,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IPU는 의회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연맹사무국내에 國際會議 문헌센타를 두고 의회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공 및 연구하며 “각국 議會의 비교연구”, “각국 의원 선거편람”, “의회관계 도서목록” 등을 발간하여 각국에 배포하고 있음. 또한 동 문헌센타는 의회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국의 의원, 의회 전문직원, 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간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그리고 IPU는 UNDP의 지원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의회직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바. 刊行物

- Inter-Parliamentary Bulletin(Quarterly)
- Summary Records of the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Bi-annual)
- Chronicle of Parliamentary Elections and Developments (Annual)
- Parliaments of the World(Decennially)
- World Directory of Parliaments(Annual)
- Proceedings of the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s(Annual)